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깨달음으로 중생의 앞길을 밝혀 주신 부처님의 높은 공덕을 기립니다.

뜻깊은 날을 맞아 우리는 불교정신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할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갈등과 대립이 적지 않습니다. 대화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적대와 불신을 키우거나, 말로는 화해와 상생을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슴을 열고 마음을 모아 명실상부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래서 결론을 얻는 민주주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공정과 투명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자비의 마음으로 따뜻한 세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화합과 상생의 불교정

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거듭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